

우리는 다음 세 본문을 살펴봅니다:

- **마가복음 6:14-29** – 세레 요한의 죽음
  - **출애굽기 27:20-30:10** – 제사장직, 제사장 의복, 향단, 기름 부음
  - **사무엘상 15:2-34** – 사울의 불순종과 폐위
- 

## 1. 핵심 주제: 권위, 순종, 거짓 왕권

세 본문은 하나의 질문을 중심으로 연결됩니다:

누가 참으로 YHWH 의 뜻을 대표하는가 – 왕인가, 선지자인가, 제사장인가?

---

## 2. 마가복음 6:14-29 – 타락한 왕권

### Herod Antipas 와 세레 요한의 죽음

헤롯은:

- 요한이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있었고
- 그를 두려워했고
- 그를 보호하기도 했으며
- 그러나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두고 처형합니다

왜입니까?

- 정치적 압력
- 체면 유지
- 경솔한 맹세
- 손님들 앞에서의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

헤롯은:

- 진리를 듣고

- 거룩함을 인식하지만
- 그것을 따를 용기가 없는 통치자입니다

그는 왕좌는 지켰지만 도덕적 권위는 잃었습니다.

---

### 3. 출애굽기 27:20-30:10 – 참된 거룩한 권위

이 본문은 다음을 다룹니다:

- 메노라의 등불 (27:20-21)
-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28-29 장)
- 향단 (30:1-10)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지도력의 모델을 봅니다.

제사장은:

-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으며
- 대중의 인기를 위해 행동하지 않고
- 순종을 통해 구별되며
- 자아가 아니라 책임을 상징하는 의복을 입습니다

홍패에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향단은 중보를 상징합니다.

등불은 “항상”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는:

- 질서 있고
- 야훼께서 세우신 것이며
- 섬김에 뿌리를 둡니다

이 본문은 선언합니다:

참된 지도력은 인기에서가 아니라 거룩한 순종에서 흘러나온다.

---

#### 4. 사무엘상 15 장 – 부분적 순종

**First Samuel 15 장**에서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 아각 왕을 살려 두고
- 가장 좋은 가축을 남기며
- 그것을 제사 드리기 위함이라고 변명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백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사무엘은 선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은 헤롯과 같이:

- 백성을 두려워하고
- 부분적으로 순종하며
- 체면을 지키려 하고
-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권을 잃습니다.

---

#### 5. 세 본문의 구조적 평행

주제	마가복음 6 장	출애굽기 27-30 장	사무엘상 15 장
지도자 유형	정치적 통치자 (헤롯)	제사장적 지도력	정치적 왕 (사울)

주제	마가복음 6 장	출애굽기 27-30 장	사무엘상 15 장
거룩한 인물과의 관계	선지자를 죽임	야훼 앞에 섬김	선지자를 거부함
순종	두려움으로 타협	정확하고 질서 있음	부분적·자기보호적
권위의 근원	로마와 대중의 승인	신적 명령	신적 명령
결과	선지자 죽음	거룩한 질서 확립	왕권 박탈

## 6. 깊은 연결

### A.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은 권위를 잃는다

-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 헤롯은 손님들을 두려워했습니다.
- 두 사람 모두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의를 희생했습니다.

### B.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은 빛을 보존한다

출애굽기의 제사장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습니다.
- 등불은 계속 타오릅니다.
- 향은 날마다 올라갑니다.

이 제사장적 모델은 가르칩니다:

극적인 행동보다 조용한 순종이 더 위대하다.

## 7. 뒤들린 지도력의 패턴

헤롯은 다윗보다 사울을 더 닮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 경솔한 맹세를 하고
- 감정적으로 행동하며
- 종교적 언어로 잘못을 정당화하고
- 선지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 한 선지자가 타락한 왕 앞에 서 있습니다.

## 8. 세 본문을 통한 신학적 흐름

사무엘상 15 장:

→ 불순종한 왕은 왕권을 잃습니다.

출애굽기 27-30 장:

→ 신적 임재를 보존하기 위해 제사장 제도가 세워집니다.

마가복음 6 장:

→ 책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왕이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 흐름은 비극적입니다:

- 사울은 왕권을 잃었지만 선지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 헤롯은 왕좌를 지켰지만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 제사장 제도만이 지속되는 신적 질서로 남습니다.

## 9. 더 깊은 정경적 메아리

출애굽기에서

향단은 휘장 앞에 서 있습니다 — 거룩함과 권력 사이의 중보를 상징합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제사장적 행위를 스스로 행하려 합니다 (권한 없는 제사).

마가복음에서

헤롯은 잔치 자리에서 맹세를 합니다 — 마치 왜곡된 언약 식사처럼 — 그리고 그 결과는 피 흘림입니다.

거룩한 것이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

## 10. 최종 종합

이 세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 순종 없는 권위는 결국 폭력이 된다.
2. 부분적 순종은 경건으로 위장한 반역이다.
3. 정치적 두려움은 선지자의 진리를 제거한다.
4. 참된 지도력은 군중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훼 앞에 백성을 품는 것이다.

출애굽기는 이상을 제시합니다.

사무엘상은 그 균열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 그 비극을 보여줍니다.